

이 종 (終 結)

詩: 高 銀

♩ = 128

わが生涯 西才情 東才情 東才情 西才情 死に臨む 二のくに 死に臨む 二のくに

6(3) 밤이여 나는 서방정 도에가지 않-읍니다 죽어도 죽어도 이나라에있-읍나
8(4)

Pf.

死に臨む 二のくに 死に臨む 二のくに 死に臨む 二のくに 死に臨む 二のくに

다 죽어서몸이야 흙이되건만 물과바람이되건만 그것으로 이나라의

死に臨む 二のくに 死に臨む 二のくに 死に臨む 二のくに 死に臨む 二のくに

바람이되건만 내 너이야 흥흥한귀신이되어 이나라강산에 있-읍니다

死に臨む 二のくに 死に臨む 二のくに 死に臨む 二のくに 死に臨む 二のくに

그 동안 몇천년일 떠돌았나 죽어서는 이나라가 온 통 산이내다 영산종기스어도 놀매정경이내도

死に臨む 二のくに 死に臨む 二のくに 死に臨む 二のくに 死に臨む 二のくに

떠돌고 갈수의 더 대동강 모란봉 위에 또 떠돌면서 새 가운데면 나도물에서

このくは、の ながしと あり 深夜の とき 深夜の とき 深夜の とき 深夜の とき

이나라의 눈물이 되고 깊은 밤술이 되어 모든 한숨을 취하게 하렵니다

このくは とうとうと あり にはうまれて ほんの こと ほんの こと ほんの こと ほんの こと

이나라에 태어날 때는 이나라를 떠돌이 하려고 태어났으며 다른것을 섬기려곤 태어지지 않았읍니다

このくは とうとうと あり にはうまれて ほんの こと ほんの こと ほんの こと ほんの こと

하나의 슬픔 천으로만으로는 깨어져 여어 슬픔이니 즙은 날밤이 온잠자는 무수으로 나는 서바정 도에가지

このくは とうとうと あり にはうまれて ほんの こと ほんの こと ほんの こと ほんの こと

양은 밤바 죽어도 죽어도 이나라의 그 음밤 귀신이 되렵니다

水は ながし ながしと あり ながしと あり ながしと あり ながしと あり

물 일 고 모진 바람 불어도 함께 영망의 물이 되고 함께 바람의 아픈 영혼

바람소리처럼입니다 남이여 이 저타이나라를 떠나겠읍니다

이 나라의 흥과 울음 황포연덕의 잔소나무들도

몇천년의 역대로 죽은 아버지들입니다 죽어도 죽어도 함께있으렵니다 좋은 비한방울로

이 나라의 날꽃이 풀포기처럼입니다 남이여 나는 죽어서 서방정 도에까지

않으렵니다 거기에저대 거기에저대 왜 죽어 서방정 도에가겠읍니다 죽어 도이나라의 케신이 됩니 다

님이여. 나는 서방정토에 가지 않으렵니다.
 죽어도 죽어도 이 나라에 있으렵니다.
 죽어서 몸이야 흙이 되건만
 문과 바람이 되건만
 그것으로 이 나라의 바람이 되건만
 내 넋이야 흉흉한 귀신이 되어
 이 나라 강산에 있으렵니다.
 그동안 몇천년을 떠돌았으나
 죽어서는 이 나라가 온통 삼입니다.
 영산강 기슭에도 놀매 갯강이에도 떠돌고
 갈 수 없던 대동강 모란봉 위에도 떠돌면서
 새가 울면 나도 울어서
 이 나라의 눈물이 되고
 깊은 밤 술이 되어
 모든 한숨을 취하게 하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날 때는
 이 나라를 떠돌이하려고 태어났으며
 다른 것들 섬기려고 태어나지 않았읍니다.
 하나의 슬픔 천으로 만으로 쪼개어져 여러
 슬픔이니
 즘은 달빛으로 잠자는 모습으로
 나는 서방정토에 가지 않으렵니다.

죽어도 죽어도

이 나라의 그믐밤 귀신이 되렵니다.

물 얼고 모진 바람 불어도

함께 얼음 밑의 물이 되고

함께 바람의 아픔으로 바람소리가 되렵니다.

님이며. 어찌타 이 나라를 떠나겠읍니까.

이 나라의 흙과 풀

황토 언덕의 잔 소나무들도

몇천년의 역대로 죽은 할아버지들입니다.

죽어도 죽어도 함께 있으렵니다.

긋은 비 한 방울로

이 나라의 날갯이 풀 포기 기르렵니다.

님이며. 나는 죽어서 서방정토에 가지 않으
렵니다.

거기에 가다니, 거기에 가다니,

왜 그런 서방정토에 가겠읍니까.

죽어도 이 나라의 귀신이 되렵니다.

臨終

高銀

ニムよ わたしは西方浄土へ行きたくないのです
死んでも この国から離れないつもりです
死ねばからだは土となり
水や風になり
それも この国の風になり
魂は荒れ狂う亡霊となって
野山に棲むのです
こうして何千年さまよえば
死んでこそこの国すべてがいのち
栄山江（ヨンサンガン）の岸、論山（ロンサン）江景（カンギョン）にさまよい
行かれなかった大同江（テドンガン）や牡丹峰（モランボン）の上もさまよって
鳥が鳴けばわたしも泣いて
この国の涙となり
深夜の酒で
嘆きのすべてを酔わせてみたいのです
ここに生まれるときは
この国をさまようために生まれて
ほかのことをするためにではないのです
ひとつの悲しみが切れ切れにちぎれた悲しみのすべて
沈む月明かりに誘われて わたしは
西方浄土へ行きたくないのです
死んでも
この国の最後の夜の亡霊になりたい
水は凍り 風吹き荒れる時も
いっしょに氷の下の水となり
いっしょに風の痛みの風の歌になりましょう
ニムよ この国から どうして離れられよう
この国の土や水
黄土の丘に立つ松の木さえ
何千年の歴代かさねたハラボジたちなのです
死んでも いつまでもいっしょにいるのです
降りしきる雨のしずくで
立ち枯れた草をそだてましょう
ニムよ わたしは死んでも西方浄土へ行きたくないのです
そこへ行くとは そこへ行くとは
どうして西方浄土へ行けましょう
死んでもこの国の亡霊になるのです